

기술의 표현과 효과

사 탐
영 역

사 회 · 문 화

해 설



smart is sexy

Orbi.kr



기술의
표현과
효과

사회·문화

해설

빠른 정답

I. 개념 파트

(1) 사회·문화 현상 vs 자연 현상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③	2	③	3	③	4	②	5	④
6	②	7	④	8	③	9	④		

(2)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①	2	②	3	③	4	①	5	③
6	ㄷ, ㄹ	7	③	8	②	9	⑤	10	②
11	④								

(3)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⑤	2	ㄴ, ㄹ	3	③	4	④	5	④
6	①	7	ㄴ, ㄷ	8	④	9	③	10	ㄱ, ㄴ
11	③	12	②	13	ㄴ, ㄷ	14	③	15	ㄴ, ㄹ
16	④	17	⑤						

(4) 자료 수집 방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ㄱ, ㄷ	2	③	3	④	4	①	5	ㄴ, ㄷ
6	②	7	④	8	③	9	④	10	⑤
11	③	12	⑤	13	②	14	⑤	15	②

(5)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와 연구 윤리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③	2	③	3	③	4	②	5	ㄱ, ㄴ

(6) 사회화 & 지위와 역할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㉔	2	㉕	3	㉔	4	㉕	5	ㄱ, ㄷ
6	ㄴ, ㄹ	7	ㄴ, ㄹ	8	㉑	9	㉔	10	㉔
11	㉔	12	㉕						

(7) 사회 집단 및 사회 조직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㉔	2	㉕	3	㉕	4	㉕	5	㉕
6	㉕	7	ㄴ, ㄷ	8	㉕	9	㉕	10	㉔
11	ㄴ, ㄹ	12	㉕	13	㉔	14	㉔	15	㉔
16	㉓	17	㉑	18	㉑	19	ㄴ, ㄹ	20	㉑

(8)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ㄴ, ㄷ	2	㉔	3	ㄴ, ㄷ	4	㉔	5	㉔
6	ㄷ, ㄹ	7	ㄱ, ㄴ	8	ㄴ, ㄹ	9	ㄱ, ㄴ	10	ㄱ, ㄴ
11	ㄴ, ㄹ	12	ㄱ, ㄷ	13	ㄱ, ㄴ				

(9) 일탈 이론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㉕	2	ㄱ, ㄴ	3	㉔	4	㉔	5	㉑
6	㉑	7	㉑	8	㉑	9	㉑	10	㉔
11	㉓								

(10) 문화의 의미와 속성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ㄱ, ㄴ, ㄷ	2	㉑	3	㉓	4	㉓	5	ㄱ, ㄴ
6	㉔	7	ㄷ, ㄹ	8	㉕	9	㉓	10	㉔
11	㉕	12	㉔						

(11) 문화 이해 태도 및 문화 이해의 관점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④	2	④	3	②	4	④	5	①
6	③	7	ㄱ	8	②	9	④	10	ㄱ, ㄴ
11	ㄱ, ㄴ	12	ㄱ, ㄴ						

(12) 현대 사회의 문화 양상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④	2	⑤	3	ㄴ, ㄷ	4	③	5	①
6	⑤	7	ㄴ, ㄷ	8	④	9	③	10	①
11	⑤	12	ㄴ, ㄷ	13	⑤	14	③		

(13) 문화 변동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ㄴ, ㄷ, ㄹ	2	④	3	③	4	①	5	②
6	⑤	7	⑤	8	③	9	③	10	①
11	⑤	12	①	13	⑤	14	①		

(14) 사회 불평등 현상의 이해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ㄷ, ㄹ	2	⑤	3	ㄴ, ㄷ	4	ㄷ, ㄹ	5	ㄱ, ㄴ
6	ㄱ, ㄴ	7	ㄴ, ㄷ	8	④				

(15)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①	2	③	3	③	4	③	5	⑤
6	③	7	⑤	8	②	9	ㄴ, ㄷ	10	②
11	⑤	12	①	13	ㄴ, ㄷ	14	②	15	⑤
16	⑤	17	④	18	②	19	ㄷ	20	⑤

(16) 사회 보장 제도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ㄱ, ㄴ	2	②	3	③	4	②	5	ㄴ, ㄷ
6	③								

(17) 사회 변동 이론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ㄴ, ㄷ	2	①	3	①	4	④	5	ㄱ, ㄴ
6	②	7	ㄴ, ㄷ	8	ㄷ, ㄹ	9	①	10	③

(18) 사회 운동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⑤	2	①	3	④	4	ㄷ, ㄹ	5	⑤
6	②	7	ㄱ, ㄴ	8	②				

(19) 현대 사회의 변화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①	2	⑤	3	②	4	②	5	①
6	ㄱ, ㄷ	7	②	8	①	9	④	10	ㄱ

II. 문제 풀이법 파트

Chapter 1. 구분 유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③	2	②	3	ㄱ, ㄴ	4	③		

Chapter 2. 개방형 문제 유형

(1) 그림 - 부분 확정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⑤	2	①	3	④	4	⑤	5	ㄱ, ㄷ, ㄹ
6	ㄷ, ㄹ	7	ㄱ, ㄷ	8	④	9	ㄱ, ㄷ	10	⑤
11	⑤								

(2) 그림 - 완전 개방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②	2	ㄱ, ㄷ	3	ㄱ, ㄷ	4	④		

(3) 표 유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㉓	2	㉕	3	ㄴ, ㄷ	4	ㄴ, ㄷ	5	㉕
6	ㄷ, ㄹ	7	ㄴ, ㄷ	8	㉓	9	ㄱ, ㄷ	10	ㄴ, ㄷ
11	㉕								

Chapter 3. 채점 및 카드 게임 유형

(1) 채점 유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㉔	2	㉕	3	㉔	4	ㄱ, ㄷ	5	㉓
6	㉔	7	㉕						

(2) 카드 게임 유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㉔	2	㉒						

Chapter 4. 옳게 응답한 학생 유형

(1)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 찾기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㉓	2	㉑	3	㉑	4	ㄱ, ㄴ		

(2) 특정 학생이 틀린 응답을 하는 경우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ㄱ, ㄴ	2	ㄱ, ㄴ	3	ㄴ, ㄷ, ㄹ	4	㉓	5	㉔

Ⅲ. 표 파트

Chapter 1. 비율과 변화율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④	2	②						

Chapter 2. 기중평균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x = 12\%, y = 13\%$	2	A 지역의 인구 : 2,000명,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 : 68명

Chapter 3. 인구 부양비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④	2	ㄴ, ㄹ	3	⑤	4	⑤	5	④
6	③	7	ㄴ, ㄹ	8	④	9	③	10	②
11	⑤	12	④						

Chapter 4. 사회 보장 제도

(1) 기중평균을 활용한 문제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⑤	2	②	3	②	4	⑤	5	④

(2)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하여 푸는 문제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ㄱ, ㄷ	2	②

(3) 일반 사회 보장 제도 문제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③	2	ㄱ, ㄷ	3	②	4	ㄴ, ㄷ	5	ㄴ, ㄷ

Chapter 5. 계층 이동

(1) 2022학년도부터의 출제 유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⑤	2	ㄱ, ㄷ	3	ㄱ, ㄴ	4	④	5	②
6	④	7	ㄴ, ㄹ	8	ㄴ, ㄷ	9	⑤		

Chapter 6. 임금 및 성 불평등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ㄴ, ㄹ	2	③	3	①	4	ㄴ, ㄷ	5	③
6	ㄱ, ㄷ	7	⑤	8	④	9	①	10	③

Chapter 7. 빈곤 유형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③	2	ㄷ, ㄹ	3	ㄷ, ㄹ				

Chapter 8. 기타 표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문항번호	정답
1	④	2	④	3	④	4	ㄱ, ㄷ	5	ㄴ, ㄹ

Part
01

개념 파트



Chapter

02 기출 문제

(1) 사회·문화 현상 vs 자연 현상

01 22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 : ③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경험적 자료를 통해 연구할 수 있다.
- ②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③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 ④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02 22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 : ③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를 따른다.
- ②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③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를 따른다.**
- ④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한다.
- ⑤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03 22학년도 수능 1번

정답 : ③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특수성이 나타난다.
- ②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③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한편, 자연 현상은 몰가치적이다.**
- ④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⑤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자연 현상은 필연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04 23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 : ②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지만, ㉠과 ㉡ 모두 사회·문화 현상이므로 해당 선지는 틀렸다.
- ②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③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인과 관계가 나타난다.
- ④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⑤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모두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05 23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 : ④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몰가치적이다.
그렇지만, ㉠과 ㉡ 모두 자연 현상이므로 틀렸다.
- ②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특수성이 나타난다.
- ③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
- ④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06 23학년도 수능 1번

정답 : ②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모두 인과 관계가 나타난다.
- ②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③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④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모두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⑤ 자연 현상은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07 24학년도 6월 평가원 1번

정답 : ④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선지 분석〉

- ①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과 같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 ② ㉣과 같은 자연 현상이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
- ③ ㉣과 같은 자연 현상과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 모두 보편성이 나타난다.
- ④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과 같은 자연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 ㉡과 같은 자연 현상과 ㉢,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 모두 경험적 자료로 연구할 수 있다.

08 24학년도 9월 평가원 1번

정답 : ③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

〈선지 분석〉

- ①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 ②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존재 법칙이 아니라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 ③ **㉡과 같은 자연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④ ㉢과 같은 자연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다.
- ⑤ ㉣과 같은 자연 현상은 특수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09 24학년도 수능 1번

정답 : ④

자연 현상	사회·문화 현상
㉠, ㉢, ㉣	㉡, ㉣

〈선지 분석〉

- ① ㉠과 같은 자연 현상은 불가치적이다.
- ② ㉢과 같은 자연 현상은 당위 법칙이 아니라 존재 법칙을 따른다.
- ③ ㉣과 같은 자연 현상은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 ④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⑤ ㉣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은 확실성의 원리가 아니라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2)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01 21학년도 6월 평가원 8번

정답 : ①

갑	을	병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선지 분석〉

- ① **기능론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③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거시적 측면이 아니라 미시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 ④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⑤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02 21학년도 9월 평가원 6번

정답 : ②

갑	을	병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기능론

〈선지 분석〉

- ① 갈등론은 결혼이 불평등한 성역할 분담 체계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②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주목한다.**
- ③ 기능론은 결혼 제도가 사회 구성원들을 충원함으로써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④ 갈등론과 기능론 모두 결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을 거시적 관점에서 이해한다.
- ⑤ 결혼 제도와 다른 사회 제도 간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03 21학년도 수능 14번

정답 : ③

갑	을	병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	기능론

<선지 분석>

- 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문화 현상을 거시적 측면이 아니라 미시적 측면에서 설명한다.
- ②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③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 ④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⑤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04 22학년도 6월 평가원 18번

정답 : ①

(가)	(나)	(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	기능론	갈등론

<선지 분석>

- ①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사회 제도를 통해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재생산된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③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④ 대립과 갈등을 사회 구조의 필연적 속성으로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⑤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가 발생 상황과 행위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 뿐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으로 상징적 상호 작용론과 갈등론을 구분할 수 있다.

05 22학년도 9월 평가원 2번

정답 : ③

갑	을	병
기능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

<선지 분석>

- ①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②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③ **갈등론은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며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 ④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하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이다.
- ⑤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06 22학년도 수능 3번

정답 : ㄷ, ㄹ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기능론이므로 두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한 C는 기능론이다.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설명하는 관점은 기능론과 갈등론이므로 세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한 B는 갈등론, '아니요'라고 답한 A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가)에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예', 기능론과 갈등론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A	B	C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	기능론

<선지 분석>

- ㄱ.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ㄴ. 사회 각 부분의 통합과 균형을 강조하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ㄷ. **기능론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과 달리 다양한 사회 제도들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한다.**
- ㄹ.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뿐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07 23학년도 6월 평가원 19번

정답 : ③

(가)	(나)	(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	기능론	갈등론

<선지 분석>

- ①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②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③ **갈등론은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 대립과 투쟁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본다.**
- ④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 질서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⑤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기능론이다.

08 23학년도 9월 평가원 14번

정답 : ②

갑	을	병
기능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갈등론

<선지 분석>

- ① 개인의 행위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② **기능론은 갈등론과 달리 기득권층이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③ 집단 간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④ 갈등론은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없다고 본다.
- ⑤ 갈등론은 거시적 관점으로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한다.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09 23학년도 수능 3번

정답 : ⑤

‘경쟁이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전문화로 인한 업무 분화는 무한 경쟁이 파괴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등의 내용을 통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은 기능론임을 알 수 있다.

〈선지 분석〉

- ① 기능론은 사회의 변동보다는 안정을 중시한다. 사회의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하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 ②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③ 사회에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 ④ 사회 제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의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 ⑤ **기능론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10 24학년도 6월 평가원 3번

정답 : ②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희소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끊임없이 투쟁하며, 두 집단의 이익은 양립할 수 없으므로 갈등은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A는 갈등론이다. 한편, 갈등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균형을 유지하려는 사회 체계의 속성으로 인하여 머지않아 조화롭게 조정된다고 보는 B는 기능론이다.

A	B
갈등론	기능론

〈선지 분석〉

- ① 상황 정의에 기초한 개인 간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은 갈등론(A)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② **기능론(B)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사회적 희소가치의 불균등한 분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 ③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고 비판을 받는 관점은 갈등론(A)이 아니라 기능론(B)이다.
- ④ 기능론(B)은 갈등론(A)과 달리 질서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쉽다. 한편, 갈등론(A)은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쉽다.
- ⑤ 갈등론(A)과 기능론(B)은 모두 개인에 대한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11 24학년도 수능 4번

정답 : ④

갑, 을의 설명에 대응하는 관점은 다음과 같다.

발언자	설명	관점
갑	사회가 생물 유기체처럼 균형을 유지한다고 전제한다. 조화와 균형은 정상적 상태로, 부조화와 불균형은 병리적 상태로 본다.	기능론
을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기능론
	사회 각 부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한다.	갈등론

갑은 옳은 설명을 제시했으므로 A는 기능론이다. 을은 B의 내용은 없고, A와 C의 내용만 있으므로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C는 갈등론이다.

〈선지 분석〉

- ① 개인의 상황 정의와 의미 해석을 강조하는 관점은 기능론(A)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B)이다.
- ②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 모순을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B)이 아니라 갈등론(C)이다.
- ③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갈등론(C)이 아니라 기능론(A)이다.
- ④ **갈등론(C)은 기능론(A), 상징적 상호 작용론(B)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따라서 해당 질문으로 기능론(A)과 상징적 상호 작용론(B)은 구분할 수 없다.**
- ⑤ 기능론(A)은 갈등론(C), 상징적 상호 작용론(B)과 달리 사회 각 제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한다. 따라서 해당 질문으로 상징적 상호 작용론(B)과 갈등론(C)은 구분할 수 없다.

Part
02

문제 풀이법 파트



Chapter
01 구분 유형

01 19학년도 수능 4번

정답 : ③

개인의 행동이 개인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강제력에 의해 규제된다고 보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이다. 따라서 두 번째 질문으로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B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개인의 행동은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 규범에 따라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뿐이므로 상징적 상호 작용론(B)는 첫 번째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다. 첫 번째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으므로 A는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할 갈등론이다. 따라서 C는 기능론이다.

A	B	C
갈등론	상징적 상호 작용론	기능론

〈선지 분석〉

- ①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A)이 아니라 기능론(C)이다.
- ② 사회의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B)이 아니라 갈등론(A)이다.
- ③ **기능론(C)은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본다.**
- ④ 사회 제도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갈등론(A)과 기능론(C)이다.
- ⑤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B)뿐이다.

02 21학년도 9월 평가원 13번

정답 : ②

선택 의지에 따라 형성된 사회 집단은 이익 사회이다. 가족,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 중 이익 사회에 속하는 사회 집단은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이므로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는 각각 A, C, D 중 하나이다. 따라서 B는 가족이다.

공통의 관심과 목표에 따라 자발적으로 결성한 사회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이다. 가족,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 중 자발적 결사체에 속하는 사회 집단은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이므로 첫 번째 질문에 가족(B)과 같은 답을 한 학교는 D이다.

명시적 규약과 체계화된 업무 수행 방식을 갖춘 사회 집단은 공식 조직이다. 가족, 사내 동호회, 시민 단체, 학교 중 공식 조직에 속하는 사회 집단은 시민 단체, 학교이므로 세 번째 질문에 가족(B)과 같은 답을 한 사내 동호회는 C, 학교(D)와 같은 답을 한 시민 단체는 A이다.

A	B	C	D
시민 단체	가족	사내 동호회	학교

〈선지 분석〉

- ① 사내 동호회(C)는 비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 ② **시민 단체(A)는 2차 집단, 가족(B)은 1차 집단이다.**
- ③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회 집단은 자발적 결사체이다.
시민 단체와 학교 중 자발적 결사체는 시민 단체(A)이다.
- ④ 구성원에 대한 비공식적 통제가 일반적인 사회 집단은 1차 집단이다.
가족, 사내 동호회, 학교 중 2차 집단은 학교(D)이다.
- ⑤ A ~ D 중 이익 사회는 시민 단체(A), 사내 동호회(C), 학교(D)이고, 공동 사회는 가족(B)이다.

03 19년 3월 교육청 7번

정답 : ㄱ, ㄴ

문화 간에 우열이 존재한다고 보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따라서 C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자기 문화의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큰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이므로 A는 문화 상대주의이다. 따라서 B는 자문화 중심주의이다. (가)에는 자문화 중심주의와 문화 상대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A	B	C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선지 분석>

- ㄱ. 문화 상대주의(C)가 문화 상대주의(A)에 비해 문화의 다양성 보존에 유리하다.
- ㄴ. 문화 상대주의(A)가 자문화 중심주의(B)에 비해 타 문화 수용에 적극적이다.
- ㄷ. 문화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C)가 아니라 자문화 중심주의(B)이다.
- ㄹ. 맹목적으로 자기 문화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A)이다.
자문화 중심주의(B)와 문화 상대주의(C) 모두 해당 질문에 '아니오'라는 같은 대답을 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04 24학년도 9월 평가원 10번

정답 : ③

(가)에는 A와 B가 서로 다른 응답을 하고, B와 C가 서로 같은 응답을 하는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① 주로 양적 자료를 수집할 때 질문지법을 활용하고,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을 활용한다.

A가 질문지법이라면 B와 C가 각각 면접법이든 참여 관찰법이든 관계없이 '주로 질적 자료를 수집할 때 활용합니까?'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고, B와 C를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A가 질문지법이라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②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 면접법과 달리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A가 면접법이라면 B와 C가 각각 질문지법이든 참여 관찰법이든 관계없이 '언어나 문자로 의사소통할 수 없는 대상으로부터 자료 수집이 가능합니까?'라는 질문으로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면접법이라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③ 질문지법, 면접법은 참여 관찰법과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이다.

C가 참여 관찰법이라면 A와 B가 각각 질문지법이든 면접법이든 관계없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 대상자의 응답이 필수적입니까?'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고,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C가 참여 관찰법이라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④ 질문지법은 면접법, 참여 관찰법과 달리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C가 질문지법이라면 A와 B가 각각 면접법이든 참여 관찰법이든 관계없이 '자료 수집 과정에서 표준화·구조화된 도구의 사용이 필수적입니까?'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고, B와 C를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C가 질문지법이라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⑤ 질문지법은 면접법, 참여 관찰법과 달리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A가 질문지법이다.

면접법, 참여 관찰법 모두 주로 방법론적 이원론을 전제로 한 연구에 활용되므로 B가 면접법이든 참여 관찰법이든 관계없이 주로 방법론적 일원론을 전제로 한 연구와 활용되지 않는다.

※ B와 C는 구분할 수 없으므로 (가)에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습니까?'가 들어갈 때, B와 C는 모두 질문지법이 될 수 없다.

Chapter 02 개방형 문제 유형

2-(1) 개방형 문제 (그림 - 부분 확정형)

01 19학년도 수능 15번

정답 : ⑤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제도 중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사회 서비스이므로 A는 사회 서비스이다.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가)에 '예'라고 답할 사회 보장 제도는 B이고, '아니요'라고 답할 사회 보장 제도는 C이다.

<선지 분석>

- ①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서비스(A)가 아니라 사회 보험이다.
- ②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대상자의 범위가 더 넓은 것은 사회 보험이므로 이 경우에 B는 공공 부조, C는 사회 보험이다. 공공 부조는 사회 서비스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 ③ C가 사회 보험이면, B는 공공 부조이다.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보험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공공 부조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는 공공 부조, C는 사회 보험이다. 사회 서비스와 사회 보험의 대상자는 중복될 수 있다. (모든 사회 보장 제도의 대상자는 중복 가능함.)
- ⑤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중 상호 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는 사회 보험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는 사회 보험, C는 공공 부조이다.
공공 부조(C)는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장 제도이다.

02 20학년도 9월 평가원 4번

정답 : ①

종이 신문, 라디오, SNS 중 시각적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는 종이 신문과 SNS이므로 A와 B는 각각 종이 신문과 SNS 중 하나이고, C는 라디오이다.

<선지 분석>

- ① A가 종이 신문이라면, B는 SNS이다. SNS는 라디오에 비해 정보 복제 및 재가공이 용이하다.
- ② 종이 신문, 라디오, SNS 중 정보 확산 경로가 가장 다양한 것은 라디오가 아니라 SNS이다.
- ③ B가 SNS라면, A는 종이 신문이다. B가 SNS이고, A가 종이 신문이라면, ㉠에는 종이 신문과 라디오의 공통점이 들어가야 한다. 종이 신문은 정보 전달과 수용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당 문장은 ㉠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에는 SNS를 포함한 두 개의 대중 매체의 공통점이 들어가야 한다. 주어진 대중 매체 중 쌍방향적 정보 전달이 가능한 것은 SNS 하나뿐이므로 해당 문장은 ㉠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경계가 뚜렷한 대중 매체는 종이 신문과 라디오이므로 C가 라디오일 때, 해당 문장이 ㉠에 들어간다면 A는 종이 신문, B는 SNS이다. 주어진 대중 매체 중 복합 감각 정보의 전달이 가능한 것은 라디오가 아니라 SNS이다.

03 20학년도 9월 평가원 12번

정답 : ④

개인의 행위보다 사회 구조를 강조하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이므로 주어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A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선지 분석>

- ①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A)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② 사회적으로 공유된 가치와 합의를 중요시하는 관점은 기능론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C는 기능론, B는 갈등론이다. 인간을 자율성을 지닌 능동적 존재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 ③ 사회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설명하는 관점은 갈등론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C는 갈등론, B는 기능론이다. 집단 간의 대립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④ 사회 제도를 지배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B가 갈등론이라면, (가)에는 기능론이 '예', 갈등론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를 유기체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관점은 기능론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⑤ 사회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다. C가 기능론이라면, (가)에는 기능론이 '예', 갈등론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적 갈등을 필연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관점은 갈등론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04 17년 10월 교육청 16번

정답 : ⑤

문화 접변의 결과 중 기존 문화의 정체성이 남아 있는 것은 문화 공존과 문화 융합이므로 주어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A는 문화 동화이다. (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할 문화 접변의 결과는 C, '아니요'라고 답할 문화 접변의 결과는 B이다.

<선지 분석>

- ① 고유 언어와 외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문화 동화가 아니라 문화 공존의 사례이다.
- ② C가 문화 공존이라면, B는 문화 융합이다. 다른 나라에서 새로 들어온 종교가 기존의 종교를 대체한 것은 문화 융합이 아니라 문화 동화의 사례이다.
- ③ 문화 공존, 문화 동화, 문화 융합 모두 외재적 요인에 의한 문화 변동에 해당한다.
- ④ B가 문화 융합이라면, (가)에는 문화 공존이 '예', 문화 융합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서로 다른 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된 것은 문화 융합이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⑤ 문화 공존과 문화 융합 중 외래문화 요소가 변형되지 않은 상태로 정착되는 문화 접변의 결과는 문화 공존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C는 문화 공존이다.

05 18년 7월 교육청 5번

정답 : ㄱ, ㄷ, ㄹ

주어진 자료 수집 방법 중 기존 연구 동향 파악에 유리한 것은 문헌 연구법이고,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주로 활용되는 것은 질문지법이므로 첫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한 A는 문헌 연구법이고, 두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한 B는 질문지법이다.

(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할 자료 수집 방법은 C, '아니요'라고 답할 자료 수집 방법은 D이다.

<선지 분석>

- ㄱ. 질문지법(B)은 다수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 ㄴ. 질문지법(B)은 표준화·구조화된 도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 ㄷ. 문헌 연구법(A)은 면접법이나 참여 관찰법에 비해 시·공간적 제약을 적게 받는다.
- ㄹ. 면접법과 참여 관찰법 중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법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C는 면접법, D는 참여 관찰법이다. 참여 관찰법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06 18년 10월 교육청 5번

정답 : ㄷ, ㄹ

인간이 상황 정의에 기초하여 행동한다고 보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므로 주어진 질문에 '예'라고 답한 A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가)에는 B 관점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ㄱ.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이다.
- ㄴ. 사회 집단 간 상호 의존성을 강조하는 관점은 기능론이다. C가 기능론이라면, (가)에는 갈등론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사회 문제를 병리적 현상으로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므로 C가 기능론일 때,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ㄷ. 사회 유기체설을 바탕으로 하는 관점은 기능론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는 기능론이다. 기능론은 사회가 본질적으로 균형을 지향한다고 본다.
- ㄹ. 사회 질서가 지배 집단의 필요를 반영하여 형성된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는 갈등론, C는 기능론이다. 기능론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07 19년 7월 교육청 17번

정답 : ㄱ, ㄷ

주어진 자료 수집 방법 중 주로 계량화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활용되는 것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실험법과 질문지법이므로 주어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A는 참여 관찰법이다. 실험법과 질문지법 중 (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할 자료 수집 방법은 C, '아니요'라고 답할 자료 수집 방법은 B이다.

<선지 분석>

- ㄱ. 참여 관찰법은 실제성이 높은 생생한 자료를 수집하기에 용이하다.
- ㄴ. 참여 관찰법은 질문지법과 실험법에 비해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 ㄷ. 실험법과 질문지법 중 언어적 상호 작용에 의한 자료 수집이 필수적인 자료 수집 방법은 질문지법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C는 질문지법, B는 실험법이다. 질문지법은 실험법에 비해 문맹자에게 사용하기 어렵다.
- ㄹ. 연구 대상자에게 인위적 조작을 가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변화를 파악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실험법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C는 실험법, B는 질문지법이다. 자료 수집 상황에 대한 통제 정도는 실험법(C) > 질문지법(B) > 참여 관찰법(A) 순이다.

08 19년 10월 교육청 15번

정답 : ④

문화 접변 결과 중 외래문화 요소와 전통문화 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것은 문화 융합이므로 주어진 질문에 '예'라고 답한 C는 문화 융합이다. (가)에는 B가 '예', A가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① 우리나라에서 서양식 나이'도' 사용하는 현상은 문화 융합이 아니라 문화 병존의 사례이다.
- ②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약할 때 나타나기 쉬운 것은 문화 융합이 아니라 문화 동화이다.
- ③ 구성원의 자발성 여부는 강제적 문화 접변과 자발적 문화 접변을 나누는 기준일뿐,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을 구분하는 기준이 아니다.
- ④ **A가 문화 병존이라면 (가)에는 문화 동화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전통문화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문화 접변 결과는 문화 동화이므로 A가 문화 병존이라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 ⑤ 전통문화 요소와 외래문화 요소가 나란히 존재하는 문화 접변 결과는 문화 병존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는 문화 병존, A는 문화 동화이다.
문화 동화는 전통문화 요소가 외래문화 체계 속으로 흡수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09 20년 3월 교육청 4번

정답 : ㄱ, ㄷ

개인의 특성보다 사회 구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관점은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기능론과 갈등론이므로 주어진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할 A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다. 갈등론과 기능론 중 (가)에는 C가 '예', B가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선지 분석>

- ㄱ.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개인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중시한다.**
- ㄴ. 상징을 통한 상호 작용을 중시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뿐이므로, 해당 질문으로는 갈등론과 기능론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ㄷ.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하는 관점은 기능론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C는 기능론, B는 갈등론이다.**
- ㄹ. C가 기능론이라면, (가)에는 기능론이 '예', 갈등론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므로 C가 기능론이라면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10 20년 10월 교육청 5번

정답 : ⑤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논리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관점은 기능론이므로 주어진 질문에 ‘예’라고 답한 A는 기능론이다.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 작용론 중 (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할 관점은 B, ‘아니요’라고 답할 관점은 C이다.

〈선지 분석〉

- ① 사회 규범이 특정 집단만의 합의를 반영한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이다.
- ② C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라면, B는 갈등론이다. 사회 불평등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 아니라 기능론이다.
- ③ 사회 유기체설을 바탕으로 하는 것은 기능론뿐이다.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모두 사회 유기체설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B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면, (가)에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만이 ‘예’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한다. 상징적 상호 작용론은 인간의 자율성을 강조한다.
- ⑤ **개인의 상황 정의를 중시하는 관점은 상징적 상호 작용론이므로 해당 질문이 (가)에 들어가면, B는 상징적 상호 작용론, C는 갈등론이다. 갈등론은 교육 제도가 계급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11 23학년도 6월 평가원 10번

정답 : ⑤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문화가 이주해 온 유럽인의 문화로 대체된 것’은 문화 동화의 사례이다. 따라서, A는 문화 동화이다. 서로 다른 사회의 문화 요소가 한 사회의 문화 체계 속에서 나란히 존재하는 현상은 문화 병존이므로 B가 문화 병존, C는 문화 융합이다.

A	B	C
문화 동화	문화 병존	문화 융합

〈선지 분석〉

- ① ‘우리나라에서 양력설과 음력설을 모두 지내는 것’은 문화 융합(C)이 아니라 문화 병존(B)의 사례이다.
- ② 문화 동화(A)도 자발적 문화 접변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
- ③ 자문화의 정체성 상실을 야기하는 것은 문화 동화(A)뿐이다. (가)에는 문화 동화, 문화 융합이 ‘예’, 문화 병존이 ‘아니요’라고 답할 질문이 들어가야 하므로 해당 질문은 (가)에 들어갈 수 없다.
- ④ 문화 동화(A), 문화 병존(B), 문화 융합(C) 모두 문화 접변의 결과로 외재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 문화 변동이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나)에 들어간다면, ㉠과 ㉡ 모두 ‘예’이다.
- ⑤ **문화 융합(C)은 문화 동화(A), 문화 병존(B)과 달리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해당 질문이 (다)에 들어간다면, ㉢은 ‘아니요’, ㉣은 ‘예’이다.**

Part
03

표 파트



Chapter
01 비율과 변화율

comment

- ① 분모의 증가율보다 분자의 증가율이 큰 경우
- ② 분자의 감소율보다 분모의 감소율이 큰 경우

01 17학년도 수능 18번

정답 : ④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것은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와 2013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를 비교하는 것이다. 본문에서 공부했듯이 2012년에 15~64세 기혼 여성 수가 전년 대비 2% 증가한 후, 2013년에 2012년에 비해 2% 감소했다면 결론적으로 15~64세 기혼 여성 수는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를 10,000명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2012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는 10,200명이다. 또한, 2013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는 10,200-204명으로 이는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인 10,000명보다 작아진다.

〈선지 분석〉

- ① 2013년에 15~64세 기혼 여성의 수는 2012년 대비 2% 감소했으므로 15~64세 기혼 여성의 수는 2012년이 2013년보다 많다.
- ② 2011년과 2015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중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같고,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가 2015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보다 많으므로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2011년이 2015년보다 많다.
- ③ 결혼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비율은 47 → 46 → 45 → 40 → 37(%)로 줄어들고 있다.
- ④ 2011년과 2015년의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비율은 같고,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가 2014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보다 많으므로 임신·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수는 2011년이 2014년보다 많다.
- ⑤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수가 가장 많은 해의 후보는 2012년과 2015년이 있다. 2012년은 15~64세 기혼 여성 수가 가장 많은 해이고, 2015년은 경력 단절의 사유로 육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2011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를 10,000명으로 가정하면 2012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는 10,200명, 2015년의 15~64세 기혼 여성 수는 9,996명이다. 10,200명의 26%보다는 9,996명의 32%가 크므로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의 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15년이다.

※ 시험장에서는 10,200명의 26%와 9,996명의 32%에 해당하는 수치를 각각 계산하여 구하지 않고도 직관적으로 9,996명의 32%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대략적인 수치를 계산하면 10,200명의 26%는 2,600명보다 조금 많을 것이고, 9,996명의 32%는 3,200명보다 조금 적을 것이다.

02 19년 4월 교육청 15번

정답 : ②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이 가장 많고, 2018년이 두 번째로 많고, 2017년이 가장 적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2017년의 전년 대비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변화율이 -2.0% 이었다가 2018년의 전년 대비 다문화 가정 학생 수 변화율이 2.0% 가 되면 2018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보다 적다. 2016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를 1,000명으로 가정하고 계산해보길 바란다.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에 가장 많은데, 전체 학생 중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은 2016년에 가장 낮으므로 전체 학생 수는 2016년에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선지 분석>

- ①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이 2018년보다 많다.
- ② **전체 학생 수는 2016년에 가장 많으므로 2017년의 전체 학생 수는 2016년에 비해 감소하였다.**
- ③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다문화 가정 학생 수와 고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과 2017년만 비교하면 된다. 2016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를 1,000명, 2017년의 다문화 가정 학생 수를 980명으로 가정하자. 이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2016년에는 1,000명의 4.9% 이고, 2017년에는 980명의 5.0% 이다. 전자는 49명이고, 후자도 49명이므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2016년과 2017년에 동일하다.

※ 980명의 5% 를 계산할 때, 980명의 10% 가 98명이고 5% 는 10% 의 절반이라는 것만 알면 굳이 식을 써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 ④ 2017년 초등학교에 있는 79.1% 라는 수치는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중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다문화 가정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아니다. 2017년에 전체 학생 중 다문화 가정 학생 비율이 1.8% 인데,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전체 초등학생 수의 과반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 ⑤ 2016년에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 중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16.8% 이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9% 이다. 16.8 은 4.9 의 4배(19.6)보다 작은 수치이므로 2016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학생 수의 4배보다 작다.

Chapter 02 가중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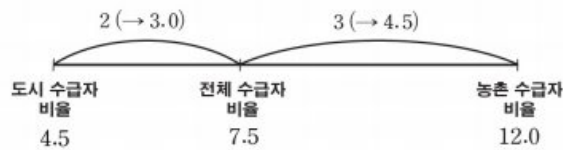
01 정답 : $x = 12\%$, $y = 13\%$

도시 인구나 농촌 인구의 비가 3:2이므로 전체 인구의 수급자 비율은 도시 인구의 수급자 비율에 더 가까이 있다. 전체 인구의 수급자 비율과 농촌 인구의 수급자 비율 간의 거리는 전체 인구의 수급자 비율과 도시 인구의 수급자 비율 간의 거리의 1.5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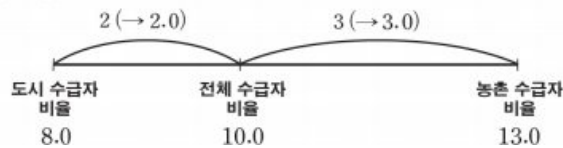
(가) 제도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3%p만큼 많으므로, 농촌 인구보다는 4.5%p만큼 적다. 따라서 x 는 12%이다.

(나) 제도 수급자 비율은 전체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2%p만큼 많으므로, 농촌 인구보다는 3%p만큼 적다. 따라서 y 는 13%이다.

(가) 제도



(나) 제도



02 정답 : A 지역의 인구 : 2,000명,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 : 68명

B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가 37명이고, 수급자 비율은 7.4%이므로 B 지역의 인구는 500명이다.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B 지역이 갑국보다 3.2%p만큼 많고, A 지역이 갑국보다 0.8%p만큼 적으므로 A 지역의 인구는 B 지역의 4배이다. 따라서 A 지역의 인구는 2,000명이다.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비율은 3.4%이므로 A 지역의 (다) 제도 수급자 수는 68명이다.

Chapter 03 인구 부양비

01 20년 10월 교육청 18번

정답 : ④

갑국의 총인구 중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표로 배치하고,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로 변환한 후 선지 판단을 하도록 하자.

(단위 : %)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65세 이상 인구	10	20	30
15~64세 인구	70	60	60
0~14세 인구	20	20	10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유소년 부양비	$2/7 \times 100$	$2/6 \times 100$	$1/6 \times 100$
노년 부양비	$1/7 \times 100$	$2/6 \times 100$	$3/6 \times 100$
노령화 지수	$1/2 \times 100$	1×100	3×100

<선지 판단>

- ① 2010년의 노령화 지수는 1990년의 6배이다.
- ② 유소년 부양비는 1990년이 2000년보다 작다. 분자가 같을 때는 분모가 작은 것이 더 큰 수이다.
- ③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의 합이 2000년에는 $4/6 \times 100$ 이고, 2010년에도 $4/6 \times 100$ 이다.
- ④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비교하려면 노년 부양비를 확인하면 된다. 노년 부양비는 2010년이 1990년보다 크므로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1990년보다 2010년이 많다.
- ⑤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모두 2000년 대비 2010년에 상승하였다.

02 17년 3월 교육청 16번

정답 : 나, 르

연령대별 인구 비율을 표로 배치하고,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로 변환한 후 선지 판단을 하도록 하자.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보고 직관적으로 선지를 판단하면 된다.

(단위 : %)

구분	A국		B국		C국	
	1980년	2015년	1980년	2015년	1980년	2015년
65세 이상 인구	16	26	6	15	11	38
15~64세 인구	68	58	65	65	73	53
0~14세 인구	16	16	29	20	16	9

구분	A국		B국		C국	
	1980년	2015년	1980년	2015년	1980년	2015년
유소년 부양비	$16/68 \times 100$	$16/58 \times 100$	$29/65 \times 100$	$20/65 \times 100$	$16/73 \times 100$	$9/53 \times 100$
노년 부양비	$16/68 \times 100$	$26/58 \times 100$	$6/65 \times 100$	$15/65 \times 100$	$11/73 \times 100$	$38/53 \times 100$
노령화 지수	1×100	$26/16 \times 100$	$6/29 \times 100$	$15/20 \times 100$	$11/16 \times 100$	$38/9 \times 100$

<선지 분석>

ㄱ. 1980년에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큰 국가는 A국이고, 2015년에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큰 국가는 C국이다. 따라서 1980년과 2015년에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큰 국가는 서로 다르다.

※ 1980년 C국의 노년 부양비인 $11/73 \times 100$ 은 $1/6 \times 100$ 보다 작고, A국의 노년 부양비인 $16/68 \times 100$ 은 $1/6 \times 100$ 보다 크므로 1980년에는 A국의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크다. 2015년에는 C국의 노년 부양비만 $1/2 \times 100$ 보다 크므로 2015년에는 C국의 노년 부양비가 가장 크다. 이렇게 가까운 수를 기준으로 수를 비교하는 것이 편리하다.

나.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노령화 지수이다.

2015년의 노령화 지수는 C국이 가장 높다.

ㄷ. 1980년 대비 2015년에 A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증가하였고, B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였다.

르. 1980년 대비 2015년에 A~C국 모두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였다.

A국과 C국의 경우, 1980년 대비 2015년에 분모는 감소하였고, 분자는 증가하였으므로 노년 부양비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03 15년 10월 교육청 14번

정답 : ⑤

별다른 조건이 없고,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모두 15~64세 인구가 기준이므로 1990년의 15~64세 인구를 100a명, 2000년의 15~64세 인구를 100b명, 2010년의 15~64세 인구를 100c명으로 두고 문제를 풀자.

(단위 : 명)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65세 이상 인구	10a	12b	20c
15~64세 인구	100a	100b	100c
0~14세 인구	40a	33b	20c
총인구	150a	145b	140c

구분	1990년	2000년	2010년
유소년 부양비	$2/5 \times 100$	$33/100 \times 100$	$1/5 \times 100$
노년 부양비	$1/10 \times 100$	$3/25 \times 100$	$1/5 \times 100$
노령화 지수	$1/4 \times 100$	$12/33 \times 100$	1×100

<선지 분석>

- ① 1990년에 총인구 중 0~14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50/150) \times 100\%$ 이다.
- ② 2000년에 0~14세 인구 100명을 부양하는 데 15~64세 인구가 33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0~14세 인구 33명을 부양하는 데 15~64세 인구가 100명이 필요한 것이다.
- ③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노령화 지수를 통해 알 수 있다.
노령화 지수는 2010년이 1990년보다 높으므로
0~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0년이 1990년보다 높다.
- ④ 총인구 중 15~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100/140$)이 2000년($100/145$)보다 높다.
- ⑤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0년은 $10/150$ 이고, 2010년은 $20/140$ 이다. $10/150$ 의 2배인 $20/150$ 은 $20/140$ 보다 작으므로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이 1990년의 2배보다 크다.

04 22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정답 : ⑤

A 지역의 노령화 지수가 2000년에는 60이므로 2000년의 유소년 인구 비율은 25%이다. 따라서, 2000년의 부양 인구 비율은 60%이다. A 지역의 노령화 지수가 2020년에는 125이므로 2020년의 노인 인구 비율은 25%이다. 따라서, 2020년의 부양 인구 비율은 55%이다. 2000년에 비해 2020년 A 지역 총인구는 20% 증가했으므로 2000년의 총인구를 1,000명이라고 하면, 2020년의 총인구는 1,200명이다.

2000년의 총인구를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2000년과 2020년의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명)

구분	2000년	2020년
유소년 인구	250	240(=200×1.2)
부양 인구	600	660(=550×1.2)
노인 인구	150	300(=250×1.2)
총인구	1,000	1,200

〈선지 분석〉

- ① 2020년에 노인 인구(300)는 유소년 인구(240)의 2배 미만이다.
- ② 부양 인구는 2000년(600)에 비해 2020년(660)에 증가하였다.
- ③ 2000년 유소년 부양비 $[(250/600) \times 100]$ 와 2020년 노인 부양비 $[(300/660) \times 100]$ 은 다르다.
약분하면 전자는 $(5/12 \times 100)$, 후자는 $(5/11 \times 100)$ 이다.
- ④ 2000년에 비해 2020년의 노인 인구는 $100\%[(300-150)/150]$ 증가하였고, 유소년 인구는 $4\%[(250-240)/250]$ 감소하였다.
- ⑤ 유소년 부양비는 2000년 $[(250/600) \times 100]$ 에 비해 2020년 $[(240/660) \times 100]$ 에 감소하였다.
노인 부양비는 2000년 $[(150/600) \times 100]$ 에 비해 2020년 $[(300/660) \times 100]$ 에 증가하였다.
총부양비는 2000년 $[(400/600) \times 100]$ 에 비해 2020년 $[(540/660) \times 100]$ 에 증가하였다.

05 22학년도 9월 평가원 15번

정답 : ④

갑국에서 t년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0%이고,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50명이므로 0~14세 인구의 비율은 20%이다. 따라서, t년에 15~64세 인구의 비율은 70%이다. t+6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20%이고,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0명이므로 0~14세 인구의 비율은 10%이다. 따라서, t+60년에 15~64세 인구의 비율은 70%이다.

을국에서 t년에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0%이고,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40명이므로 0~14세 인구의 비율은 25%이다. 따라서, t년에 15~64세 인구의 비율은 65%이다. t+60년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30%이고, 0~1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300명이므로 0~14세 인구의 비율은 10%이다. 따라서, t+60년에 15~64세 인구의 비율은 60%이다.

갑국 전체 인구와 을국 전체 인구는 각각 t년 대비 t+60년에 10% 증가했으므로 t년의 갑국 전체 인구를 1,000a명, 을국 전체 인구를 1,000b명이라고 하면 갑국과 을국의 t년과 t+60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인구는 각각 다음과 같다.

(단위 : %)

구분	갑국		을국	
	t년	t+60년	t년	t+60년
65세 이상 인구	100a	220a	100b	330b
15~64세 인구	700a	770a	650b	660b
0~14세 인구	200a	110a	250b	110b
총인구	1,000a	1,100a	1,000b	1,100b

〈선지 분석〉

- ① t년의 노인 부양비는 갑국 $[(100/700) \times 100]$ 이 을국 $[(100/650) \times 100]$ 보다 작다.
- ② t+60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 $[(110/770) \times 100]$ 이 을국 $[(110/660) \times 100]$ 보다 작다.
- ③ 갑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t년(100a) 대비 t+60년(220a)에 2.2배가 되었다.
- ④ t년 대비 t+60년에 15~64세 인구는 갑국(700a→770a)과 을국(650b→660b) 모두 증가하였다.
- ⑤ t년 대비 t+60년에 0~14세 인구는 갑국(200a→110a)과 을국(250b→110b) 모두 감소하였다.

06 22학년도 수능 20번

정답 : ③

갑국에서 $t+100$ 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 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1/2$ 이고, t 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2배이므로 t 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a\%$ 라고 하면, $t+100$ 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a\%$ 이고, t 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a\%$ 이다.

노인 인구, 부양 인구,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합은 100% 이고, t 년에 총부양비가 100이라는 것은 부양 인구와 (유소년 인구+노인 인구)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부양 인구 비율은 50% 이고, a 는 10이다. 갑국에서 $t+100$ 년에 총부양비는 150이므로 $t+100$ 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다. $t+100$ 년에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이므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40% 이다.

(단위 : %)

연령대별 인구	t 년	$t+100$ 년
노인 인구	10	40
부양 인구	50	40
유소년 인구	40	20

t 년과 $t+100$ 년의 부양 인구는 동일하므로 t 년과 $t+100$ 년의 부양 인구를 200명이라고 하면, 시기·연령대별 인구는 다음과 같다.

(단위 : %)

연령대별 인구	t 년	$t+100$ 년
노인 인구	40	200
부양 인구	200	200
유소년 인구	160	100

〈선지 분석〉

- ① 전체 인구는 t 년 대비 $t+100$ 년에 $25\%[\{(500-400)/400\} \times 100\%]$ 증가하였다.
- ② 유소년 부양비는 t 년 대비 $t+100$ 년에 $37.5\%[\{(80-50)/80\} \times 100\%]$ 감소하였다.
- ③ **노령화 지수는 $t+100$ 년 $[2 \times 100]$ 이 t 년 $[(1/4) \times 100]$ 의 8배이다.**
- ④ 노년 부양비는 $t+100$ 년 $[1 \times 100]$ 이 t 년 $[(1/5) \times 100]$ 의 5배이다.
- ⑤ t 년의 유소년 인구(160)와 $t+100$ 년의 노인 인구(200)는 서로 다르다.

07 23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정답 : 나, 르

갑국의 부양 인구는 t 년에 비해 $t+100$ 년에 절반으로 감소했으나, 두 시기의 총부양비가 60으로 동일하다는 말을 통해 총인구도 t 년에 비해 $t+100$ 년에 절반으로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 년과 $t+100$ 년에 갑국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은 $62.5[(100/100+60)\times 100]\%$ 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갑국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노년 인구)의 비율은 t 년과 $t+100$ 년 모두 $37.5(100-62.5)\%$ 이며, 갑국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t 년이 12.5%, $t+100$ 년이 25%이다. 이를 통해 t 년과 $t+100$ 년의 노년 인구는 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t 년에 비해 $t+100$ 년의 유소년 인구는 $1/4$ 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t 년의 부양 인구를 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두 시기의 인구 분포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구분	t 년	$t+100$ 년
노년 인구	200	200
부양 인구	1,000	500
유소년 인구	400	100
총인구	1,600	800

<선지 분석>

- ㄱ. 유소년 인구는 t 년(400) 대비 $t+100$ 년(100)에 $75\{[(400-100)/400]\times 100\}\%$ 감소하였다.
- 나. t 년의 노년 인구(200)와 $t+100$ 년의 노년 인구(200)는 동일하다.**
- ㄴ.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t 년(3/8)과 $t+100$ 년(3/8)에서 동일하다. 이는 두 시기의 총부양비가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르. 유소년 부양비는 t 년에 $40[(4/10)\times 100]$, $t+100$ 년에 $20[(2/10)\times 100]$ 이고, 노년 부양비는 t 년에 $20[(1/5)\times 100]$, $t+100$ 년에 $40[(2/5)\times 100]$ 이다.**
- t 년에 비해 $t+100$ 년에 유소년 부양비는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노년 부양비는 2배가 되었으므로 해당 문장은 (가)에 들어갈 수 있다.

08 23학년도 9월 평가원 20번

정답 : ④

t년에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므로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과 같다. t년에 유소년 인구는 750만 명, 노년 인구는 250만 명이므로 부양 인구는 1,000만 명이다.

A의 경우 유소년 인구는 900만 명($750\text{만 명} \times 1.2$), 노년 인구는 300만 명($250\text{만 명} \times 1.2$)이다. 이때,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므로 부양 인구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과 같다. 따라서, A의 경우 부양 인구는 1,200만 명이다.

B의 경우 유소년 인구는 600만 명($750\text{만 명} \times 0.8$), 노년 인구는 600만 명($250\text{만 명} \times 2.4$)이다. 이때, 부양 인구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므로 부양 인구는 유소년 인구와 노년 인구의 합과 같다. 따라서, B의 경우 부양 인구는 1,200만 명이다.

※ 20% 증가는 기존 수치의 1.2배가, 20% 감소는 기존 수치의 0.8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현재(t년)	t+100년의 시나리오 예측 결과	
		A	B
유소년 인구 (0~14세 인구)	750만 명	900만 명	600만 명
부양 인구 (15~64세 인구)	1,000만 명	1,200만 명	1,200만 명
노년 인구 (65세 이상 인구)	250만 명	300만 명	600만 명
전체 인구	2,000만 명	2,400만 명	2,400만 명

〈선지 분석〉

- ① 노년 부양비는 A가 $25[(300/1,200) \times 100]$, 현재도 $25[(250/1,000) \times 100]$ 이므로 둘은 같다.
- ② 총부양비는 B가 $100[(1,200/1,200) \times 100]$, 현재도 $100[(1,000/1,000) \times 100]$ 이므로 둘은 같다.

※ t년과 t+100년의 가정 모두 부양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므로 총부양비는 100으로 같다.

- ③ 유소년 부양비는 A가 $75[(900/1,200) \times 100]$, B가 $50[(600/1,200) \times 100]$ 이므로 A가 B의 1.5배이다.
- ④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B [$(6/24) \times 100\%$]가 A [$(3/24) \times 100\%$]의 2배이다.
- ⑤ 전체 인구에서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B [$(6/24) \times 100\%$]가 A [$(3/24) \times 100\%$]보다 높고,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A [$(9/24) \times 100\%$]가 B [$(6/24) \times 100\%$]보다 높으므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A보다 B에서 더 부각된다.

09 23학년도 수능 20번

정답 : ③

t년 대비 t+50년에 전체 인구는 25% 증가했으므로 t년 전체 인구를 400a명이라고 가정하면, t+50년의 전체 인구는 500a명이다. t+50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28%이므로 140a명이고, t년 대비 t+50년에 유소년 인구는 12.5% 감소했으므로 t년에 유소년 인구는 160a(= 140a×8/7)명이다. 이를 통해 t년의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은 40%임을 알 수 있다.

t년의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율은 20%이므로 부양 인구 비율은 40%이다. 따라서, t년에 노년 부양비는 50(= 20/40×100)이다. t년 대비 t+50년에 노년 부양비는 150% 증가했으므로 t+50년에 노년 부양비는 125이다. t+50년에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과 부양 인구 비율의 합은 72%이므로 t+50년에 전체 인구 중 노년 인구 비율은 40[= 72×(5 / 4+5)]%이고, 부양 인구 비율은 32[= 72×(4 / 4+5)]%이다.

구분	t년	t+50년
노인 인구	80a명 (20%)	200a명 (40%)
부양 인구	160a명 (40%)	160a명 (32%)
유소년 인구	160a명 (40%)	140a명 (28%)
전체 인구	400a명 (100%)	500a명 (100%)

〈선지 분석〉

- ① t년의 유소년 인구(160a명)는 t+50년의 노년 인구(200a명)보다 적다.
- ② t년 대비 t+50년에 전체 인구 증가율은 25[= {(500-400) / 400} × 100]%고, 피부양 인구 증가율은 41.66…[= {(340-240) / 240} × 100]%이다.
따라서, t년 대비 t+50년에 전체 인구 증가율이 피부양 인구 증가율보다 작다.
※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년이 t+50년보다 크므로 피부양 인구 비율은 t+50년이 t년보다 크다. 때문에 t년 대비 t+50년에 피부양 인구 증가율이 전체 인구 증가율보다 크다.
- ③ t년 대비 t+5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율은 12.5[= {(160-140) / 160} × 100]%이고,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도 12.5[= {(100-87.5) / 100} × 100]%이다.
따라서, t년 대비 t+5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율과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은 동일하다.
※ 유소년 부양비에서 분모에 해당하는 것은 부양 인구이다. 그런데, t년과 t+50년에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수가 동일하므로 t년 대비 t+50년에 유소년 인구 감소율과 유소년 부양비 감소율은 동일하다.
- ④ 전체 인구에서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t년(40%)이 t+50년(32%)보다 크다.
- ⑤ 부양 인구는 t년(160a명)과 t+50년(160a명)에 동일하다.

10 24학년도 6월 평가원 20번

정답 : ②

갑국의 $t+50$ 년과 $t+100$ 년의 총인구가 각각 t 년 총인구의 2배와 1.5배이므로 t 년의 총인구를 100명이라고 가정하면, $t+50$ 년과 $t+100$ 년의 총인구는 각각 200명과 150명이다. 갑국 총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t 년과 $t+50$ 년이 각각 40%, $t+100$ 년이 30%이므로 부양 인구는 t 년 40명, $t+50$ 년 80명, $t+100$ 년 45명이다.

노년 부양비는 $t+50$ 년이 75, t 년이 25이므로 노년 인구는 t 년 $10(= 40 \times 0.25)$ 명, $t+50$ 년 $60(= 80 \times 0.75)$ 명이다. 따라서, 유소년 인구는 t 년 50명, $t+50$ 년 60명이다. $t+100$ 년의 노령화 지수는 250이므로 노년 인구는 유소년 인구의 2.5배이다. $t+100$ 년에 노년 인가와 유소년 인구의 합은 105명이므로 노년 인구는 75명, 유소년 인구는 30명이다.

(단위 : 명)

	t년	t+50년	t+100년
노년 인구	10	60	75
부양 인구	40	80	45
유소년 인구	50	60	30
총인구	100	200	150

〈선지 분석〉

- ① $t+50$ 년의 총부양비[$150(= 120/80 \times 100)$]는 t 년의 총부양비[$150(= 60/40 \times 100)$]와 같다.
※ $t+50$ 년과 t 년의 총인구 중 부양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으므로 총부양비는 같을 수밖에 없다.
- ② $t+50$ 년의 노령화 지수[$100(= 60/60 \times 100)$]는 t 년[$20(= 10/50 \times 100)$]의 5배이다.
- ③ $t+50$ 년의 부양 인구(80명)는 t 년(40명)에 비해 $100[(= (80-40)/40)]\%$ 증가하였다.
- ④ 유소년 인구는 t 년(50명), $t+50$ 년(60명), $t+100$ 년(30명) 중 $t+100$ 년에 가장 적다.
- ⑤ 유소년 부양비는 t 년[$125(= 50/40 \times 100)$], $t+50$ 년[$75(= 60/80 \times 100)$], $t+100$ 년[$66.66 \dots (= 30/45 \times 100)$] 중 t 년이 가장 크고, $t+100$ 년이 가장 작다.

11 24학년도 9월 평가원 20번

정답 : ⑤

전체 인구는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년 인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A+B+C$ 는 100%이다. 갑국에 t 년의 경우 $B+C/A=2/3$ 이므로 $B+C$ 의 비율이 40%, A 의 비율이 60%이다. C 의 비율이 B 의 비율의 3배이므로 B 의 비율은 10%, C 의 비율은 30%이다. 갑국에서 t 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50이므로 A 는 부양 인구, C 는 유소년 인구이다. 따라서 B 는 노년 인구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풀면 갑국에 $t+50$ 년의 경우 $B+C$ 의 비율이 50%, A 의 비율이 50%이고, C 의 비율이 B 의 비율의 $3/2$ 배이므로 B 의 비율은 20%, C 의 비율은 30%이다.

을국에 t년의 경우 B+C의 비율이 35%, A의 비율이 65%이고, C의 비율이 B의 비율의 6배이므로 B의 비율은 5%, C의 비율은 30%이다. t+50년의 경우 B+C의 비율이 50%, A의 비율이 50%이고, C의 비율이 B의 비율의 3/2배이므로 B의 비율은 20%, C의 비율은 30%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갑국과 을국에 t년과 t+50년의 인구 구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단위 : %)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노년 인구(B)	10	20	5	20
부양 인구(A)	60	50	65	50
유소년 인구(C)	30	30	30	30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변하지 않았는데, 갑국의 유소년 인구는 10% 감소했으므로 t년 대비 t+50년에 갑국 전체 인구는 10%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t년 대비 t+50년에 을국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변하지 않았는데, 을국의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했으므로 t년 대비 t+50년에 을국 전체 인구는 20%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는 단서까지 종합해서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를 각각 1,000명으로 가정했을 때, 갑국과 을국에서 t년과 t+50년의 인구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노년 인구(B)	100	180	50	160
부양 인구(A)	600	450	650	400
유소년 인구(C)	300	270	300	240
전체 인구	1,000	900	1,000	800

<선지 분석>

- ① t년에 노년 부양비는 갑국 $\{(1/6) \times 100\}$ 이 을국 $\{(1/13) \times 100\}$ 의 2배가 아니다.
- ② t+50년에 유소년 인구는 갑국(270)이 을국(240)보다 많다.
- ③ t+5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을국의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20%이다. 따라서 t+50년에 갑국과 을국 모두 초고령 사회이다.
- ④ 을국의 경우 t년에서 t+50년 사이에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한 것을 보았을 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갑국의 경우도 t년에서 t+50년 사이에 노년 인구가 증가하고 유소년 인구가 감소한 것을 보았을 때,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 ⑤ t년에 부양 인구는 을국(650)이 갑국(600)보다 많고, t+50년에 부양 인구는 갑국(450)이 을국(400)보다 많다.

12 24학년도 수능 20번

정답 : ④

갑국에서 t년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이 50%이고, 노령화 지수를 보았을 때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의 4배이므로 유소년 인구 비율은 40%, 노년 인구 비율은 10%이다. 갑국에서 t+50년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이 60%이고, 노령화 지수를 보았을 때 유소년 인구가 노년 인구와 같으므로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 노년 인구 비율은 20%이다.

을국에서 t년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이 50%이고, 노령화 지수를 보았을 때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1.5배이므로 노년 인구 비율은 30%, 유소년 인구 비율은 20%이다. 을국에서 t+50년의 경우 전체 인구 대비 15~64세 인구 비율이 55%이고, 노령화 지수를 보았을 때 노년 인구가 유소년 인구의 2배이므로 노년 인구 비율은 30%, 유소년 인구 비율은 15%이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 갑국과 을국의 t년과 t+50년의 인구 구성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 %)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10	20	30	30
15~64세 인구	50	60	50	55
유소년(0~14세 인구)	40	20	20	15

t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고, t년 대비 t+50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는 10% 감소하였으며, 을국은 전체 인구는 20% 감소하였다는 단서를 통해 t년에 갑국의 전체 인구를 1,000명이라고 할 때, 갑국과 을국의 t년과 t+50년의 인구는 다음과 같다.

(단위 : 명)

	갑국		을국	
	t년	t+50년	t년	t+50년
노년 인구(65세 이상 인구)	100	180	300	240
15~64세 인구	500	540	500	440
유소년(0~14세 인구)	400	180	200	120
전체 인구	1,000	900	1,000	800

〈선지 분석〉

- ① 함께 출산율을 보았을 때, t년과 t+50년 모두 저출산 현상은 을국이 갑국에 비해 강하게 나타난다.
- ② t년에 갑국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이므로 초고령 사회가 아니다.
- ③ t년 대비 t+50년의 노령화 지수 증가율은 을국 $[33.33\cdots\{=(200-150)/150\}]$ 이 갑국 $[300\{=(100-25)/25\}]$ 보다 작다.
- ④ t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200)는 t+50년에 갑국의 유소년 인구(180)보다 많다.
- ⑤ t년에 노년 인구는 을국(300)이 갑국(100)의 3배이고, t+50년에 노년 인구는 을국(240)이 갑국(180)의 1.33...배이다.